



5월 26일 대회에 앞서 마가스님의 명상시간에 이어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의 축사와 모범청소년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여 등이 이어졌다. 본 행사에서는 명지중의 '웃다리', 동대부고 '천수바라', 인천부루나포교원 '영남사물놀이', 시흥중 '화선무', 경민고 '서용석류 대금산조', 동대부고 '장고춤', 국립전통예술고 '지영의류 해금산조', 경남칠성중 '고성오광대', 동대부중 '삼도사물놀이', 국립전통예술고 '짧은 산조', 동대부여중 '국악관현악' 등이 진행됐다. 동대부여중의 '국악관현악' 모습.

“전통문화 ‘맥’ 청소년이 잇고 있다”

“청소년 전통교육에 불교계 관심가져야”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



“외국문화 유입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아갈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청소년교화연합회는 전통문화 지킴이로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26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님은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의 시작을 이렇게 말했다.

“일본문화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입니다. 당시 청소년들이 한국문화는 모르고 일본문화에 쫓겨가는 것을 보며 대회를 열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1981년부터 30년 넘게 안양교도소 위문봉회, 5군단 수계법회, 현성정사 어르신잔치 등을 열고 있는 스님은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꾸준히 대회를 열어왔다.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는 문화관광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최근 여성가족부로 담당 업무가 이관되며 지원이 중단됐다.

현성 스님은 “최근 각 학교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매년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스님은 “남은 생동안 우리 미래세대에 꿈을 심는데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밝게 웃었다.

청소년교화聯, ‘제26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

“텀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덕~♪”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5월 말 동국대 중강당은 떠들썩한 풍물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 소리로 가득 찼다. 청소년교화연합회(총재 현성)가 5월 2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26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한 것.

이날 대회에는 명지중학교 사물놀이패, 국립전통예술고 해금산조패 등 예선을 거친 총 11개 팀이 출전해 500여 청소년 관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교화연합회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적 관심 증진과 예술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부처님오신날 및 5월 청소년의달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왔다.

4부로 나뉜 행사의 1부는 백두한라예술단 공연을 시작으로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준문화재 김장순 씨의 개막공연으로 시작했다. 본행사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귀를 쫑긋 기울였다. 공연은 크게 전통춤과 국악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는 명지중학교의 ‘웃다리’. 웃다리는 사물놀이의 다른 이름이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아이들의 박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이어 진행된 동대부고의 천수바라는 청소년들이 스님박장을 하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다소 미숙하기도 했지만

만 바리를 치는 모습에서는 열정이 뿜어져 나왔다.

공연 중 특히 국립전통예술고의 해금산조와 짧은 산조, 동대부여중의 국악관현악의 잔잔하면서도 애잔한 선율은 좌중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국악관현악의 말미에서는 깜짝 반전 이벤트로 한복을 곁에 입은 단원이 팽가리를 쳐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고성오광대놀이에서는 광대들이 대중들 앞으로 다가오는 등 참관한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

5월 26일 동국대 중강당서

‘장고춤’ 등 무형문화재 선 뵈

500여 학생 어깨춤 등 열띤 호응

나는 무대가 진행되기도 했다. 경연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은 날씨에도 동국대 만해광장 등 곳곳에서 연습을 진행하기도 했다.

‘고성 오광대놀이’를 지도한 정종빈 경남칠성중 지도교사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인 고성오광대 놀이 맥을 잇는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사는 “또래 아이들 앞에서 전통문화를 공연하는 경험이 자라는 아이들에

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열심히 연습하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사회 미래가 밝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흥겨운 무대가 이어지자 대회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일반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동대부여중 이민지 양(중1)은 “이날 대회에 자원 봉사하러 참가하게 됐다”며 “학교 내에 전통문화 동아리 활동이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이날 공연을 보며 알게 됐다. 학교에 가서 동아리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대부고 배우리 양(고1)도 “또래 아이들이 전통문화인의 꿈을 꾸며 풍물과 춤을 열심히 추는 것이 보기 좋았다”며 “특히 일부 공연에서 현대음악과 전통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나온 부분이 제일 흥미났다”고 말했다.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대회는 본 경연에 이어 강남송죽국악예술봉사단 공연과 청담고 댄싱팀 공연, 시상 및 경품추천 등으로 마무리됐다. 대상은 국립전통예술고의 ‘지영의류 해금산조’, 최우수상은 동대부여중의 ‘장고춤’, 경민고등학교 ‘서용석류 대금산조’가 차지했다. 하지만 모든 팀에게 부상과 상금이 돌아갔으며 일일이 격려하는 심사위원들의 말이 이어지며 원만한 회향됐다. 청소년들의 전통문화를 향한 꿈과 열정은 이렇게 영글어 가고 있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경남 칠성중의 ‘고성 오광대 놀이’ 신명나는 공연 모습



참관한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공연을 함께 즐겼다.



금색의 고깔을 쓰고 바라춤을 재현한 동대부고의 ‘천수바라’



동대부중팀이 ‘삼도사물놀이’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들 요익케 하고 있다.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허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정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